

그리스도의 권위와 메시아 입증

성경말씀: 눅20:1-19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 1. 백성들의 시118편 호산나 환영, 2. 성전 청소(강도들), 3.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침, 이제 십자가 처형까지 3-4일 남음

지도자들이 당황함, 백성들이 그분을 따라감. 더욱이 날마다 자기들의 터전인 성전에서 가르침(19:47) 이분을 제지하기 위해 권위 문제를 들고 나옴(1-2), 무슨 권위, 누가 주었느냐?

권위: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사회 정치 종교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권위가 없으면 혼란이 생긴다(마8:8-9). 심지어 병도 권위로 고친다.

수제사장들: 아론의 후예, 율법에서 권위를 받음(레위 지파 특권)

서기관/율법 학자들: 저명한 랍비에게서 율법 공부, 장로들: 경험과 지혜가 많은 리더들 이들은 항상 “랍비 가말리엘은 이렇게.. 랍비 삼마는 저렇게..”

예수님은 시작부터 달랐다: 천국과 지옥(막9, 눅16, 마10:28), 산상수훈의 의식주 문제

권위로 마귀 제압(눅4:36), 권위로 죽은 자도 살림

무엇이든 말씀하면 본인 자신의 말씀, 하나님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왕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마7:21, 28-29).

더욱이 공생애 마지막 시점에 (1) 주님에게 권위가 없으면 큰 문제: 대언자처럼 성전 가르침

(2)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면 메시아, 로마 사람들, 유월절 소요

예수님을 무력화하려는 작전에 대한 주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권위와 메시아 입증>, 1. 질문, 2. 비유,

3. 성경 인용(성경의 권위)

주님의 질문

주님의 질문(3-4)

왜 침례자 요한인가? 모든 백성이 그를 존중함

많은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침례를 받음(마3, 눅3)

침례자 요한의 사역: 메시아 준비(요1:15-34), 29, 요한 거부, 예수님 거부, 하나님 거부 종교 지도자들의 딜레마(5-7)

도저히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말할 수 없음: 그것은 그분이 메시아, 자신들은 죄인(7:29-30) 아니라고 하면 돌에 맞아 죽음

결국 모른다고 함

그러면 실제로 아는가, 모르는가? 안다. 그런데 벗어나기 위해 모른다고 거짓말: 이것이 위선 이들이 참 지도자로서 예수님이 사기꾼임을 확신하면 그렇다고 말해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자인 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했다. 그 결과 내 메시지도 거부할 것이다.

주님의 대답(8),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 주님의 약속(21:12-15)

주님의 비유(9-16)

주님의 포도원 비유(9-12),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잘 알고 있다. 이사야서 5장 포도원(1-3)

시80:8,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다가 이교도들을 제거하고 심으심

주님은 이 포도나무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심.

한 가지 요구: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민족이 되기를 원함, 이교도 국가들에게 빛이 되기를 원함 그런데 날이 지나면서 이런 기대는 무너짐, 감사 대신 불평과 반역, 인류의 문제: 마귀 승배, 전 이교도

세상 우상승배, 참 하나님 창조가 있음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바알을 섬김

주님께서서는 사랑을 보이시며 참고 참으시며 종들을 하나씩 보냄, 이들은 모두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런데 모두 핍박하고 죽임(마23:29-39)

가인부터 마지막 대언자 스가랴에 이르기까지(히11:36-38)

이사야는 톱에 끌려,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끌려가서, 사가랴는 바른 말을 하다가

이유: 본인들이 권위를 가지고 포도원을 경영하고 싶음, 교회가 이 형태가 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냄(13): 가장 큰 권위를 부여받음(요10:3), 아버지와 하나
농부들의 생각(14)과 실행(15): 자신의 죽음 다시 예고, 눅9:22 확증
아버지의 심판(16): 사랑으로 참으시지만 원래 공의의 하나님, 그냥 두지 않는다(히12:28-29).

주님의 권위 성경 말씀(17-18)

시편 118편은 메시아 시편, 누구나 다 안다. 백성은 예수님을 향해 이미 26절을 외쳤다. 메시아라고
주님은 같은 시편의 22-23절을 인용하신다.

여기의 건축자들은 종교 지도자들, 자기를 돌로 표현하시며 메시아라고 말씀하신다.

이 돌이 너희를 부술 것이다(18). 무서운 심판의 말씀

주님은 부수는 돌, 실족하게 하는 돌로 표현됨: 사8:14, 단2:45-45

어떤 자들을 부수는가: 1.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마치 부모 거부), 2.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아를 모르는 자

침례자 요한 거부: 아버지 거부, 십자가 처형: 아들 거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 거부: 성령님 거부

그 결과 복음이 유대인에서 사마리아, 이방인, 사도행전 역사, 유대인들이 밀려남

이들의 반응(19)

이들은 침례자 요한의 사역, 주님의 비유, 성경 말씀을 통해 본인들의 문제 확인

그런데 믿고 고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함(19)

결국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죽임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를 거부하면 또 다른 진리를 주시지 않는다.

창조 세상, 양심, 창조자가 있어. 심판하는 분이 있다. 거부하면 더 이상의 진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진다.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지옥

우리의 권위는 무엇인가?

이들의 문제: 사람의 전통, 체제, 관습, 명예와 학식

그러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교단이나 교파나 목사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말씀이 영감으로 주어지고 섭리로 보존되어야 권위가 산다.

킹제임스 성경의 다른 이름(Authorized version), 하나님의 권위 성경

첨가 삭제 오류가 없는 성경, 이것이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벧전2:4-9)

결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는가?

아버지 거부, 아들 거부, 성령님 거부, 돌에 의해 갈리는 무서운 일이 생긴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산돌이 되기를 원한다.